



**[뉴스]**  
‘핑크 난’ 한국타이어  
3세 리스크에  
실적 곤두박질  
02



**Economy**

코스피	2208.88 (-33.29)	코스닥	682.92 (-9.67)
금리 (연고채 3년)	1.27 (-0.05)	환율 (USD-달러)	1189.50 (+5.60) (18일)



독자개발 위성 ‘천리안 2B호’ 우주로

정지궤도위성 ‘천리안 2B호’가 오는 19일(한국시간) 남아메리카 프랑스령 기아나에서 발사된다. 위성은 앞으로 3만6000km 상공에서 동아시아 지역을 바라보며 미세먼지의 이동과 적조·녹조 현상을 담은 데이터를 보내게 된다. 사진은 천리안 2B호의 개발 과정을 담은 모습. /연합뉴스

## 분양 회사 번돈으로 한진칼 매입 반도, 1600억 출처 내부거래 의혹

‘땅콩 연합’ 도덕성 논란  
사업확장·주식처분 등  
그룹개선보다 잣밥 관심



(왼쪽부터)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이명희 정성기업 고문, 조현민 한진칼 전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연합뉴스

한진그룹 경영권을 두고 조원태 회장과 조현아 전 부사장의 신경전이 치열하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KCGI(강성부 펀드), 반도건설과 손잡고 한진그룹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오너리스크를 문제 삼던 KCGI와 단순투자만 하겠다던 반도건설이 입장을 바꾸는 모습을 두고, 지배구조 개선보다 ‘잣밥’에 관심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항공의 지주사인 한진칼 지분은 조원태 회장 6.52%, 조현아 전 부사장 6.49%, 조현민 전무 6.47%, 이명희 고문 5.31%, 재단 등 특수관계인 5.15%로 구성돼 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을 포함해 KCGI 투자 목적의 그레이스홀딩스 17.3%와 반도건설 8.28% 지분을 합하

면 32.06%이다.  
◆반도건설, 분양수익 한진칼에 모두투자

18일 NICE평가정보에 따르면 반도건설은 한영개발 대호개발 반도개발 등 3개 계열사를 통해 한진칼 지분을 늘려왔다. 지분을 가장 많이 매입한 계열사는 한영개발(3.82%)로 지분을 인수하는데 715억원을 투입했다. 대호개발은 지분 3.62% 매입에 684억원을 투자했다.

눈길을 끄는 것은 설립시기(2012년 7월)부터 한진칼 지분을 사들인 시기가 같다는 것. 이들은 주택경기 호황을 업고 대

규모 아파트 개발을 통해 3억원의 자본금을 시작으로 수 천억원의 분양대금을 끌어왔다.

한영개발은 경기도 남양주 다산신도시 지금지구의 반도유보라메이플타운 2.0을 개발해 2016년 8월 분양했다. 미분양 대금은 2018년 12월 기준 4억 2500만원으로 분양 100%라고 봐도 무방하다. 매달 들어오는 분양대금은 2017년 2454억원, 2018년 1575억원이다.

한영개발의 2018년 12월 말 기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14억원으로 2018년 당기순이익 474억원을 합치면 488억원이

다. 여기에 입주 시작 뒤 유입된 분양미수금 1117억원 중 각종 비용을 제외하고, 15~20% 수준의 현금을 확보(167~223억원)했다면 최대 708억원이다. 한진칼 지분 매입(715억원)에 보유 자금을 모두 쏟아부은 셈이다.

대호개발도 울산 북구 송정동 반도 유보라아이비파크를 2016년 12월 분양했다. 총 1162가구로 분양대금은 총 4475억원이다. 분양 시작 이후 유입되는 분양대금은 2016년 14억원, 2017년 1850억원, 2018년 2372억원, 2019년 926억원이다.

대호개발의 지난 2018년 12월 말 기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56억원으로 2018년 당기순이익 448억원을 합치면, 504억원이다. 여기에 3월 입주를 시작한 뒤 최대 6개월에 걸쳐 유입된 분양미수금 976억원 중 비용을 제외한 15~20% 수준의 현금을 확보(146~195억원)를 확보했다면 최대 699억원이다. <3면에 계속>

/나누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社告** **수습기자 채용 오늘 마감**

**미디어의 새 길  
메트로와 함께!**

2002년 월드컵의 합성과 함께 태어난 메트로신문은 지난 2015년 11월 ‘뉴메트로 선언’에 이어 2018년 3월 유가지 <메트로경제>의 동시발행 등을 통해 다양하고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하면서 미디어 업계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메트로신문과 메트로경제를 발행하는 메트로미디어는 매체 다변화 시대를 적극 주도하기 위해 온라인과 지면의 동시발행이란 장점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빅데이터 기반의 분석기사, 인공지능(AI) 도입 등 개방형 혁신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메트로는 독자들하고 함께 하며 뉴미디어 시대를 선도할 계획입니다. 18년 역사의 메트로와 함께 언론의 새로운 길을 개척할 인재 모집에 많은 지원 바랍니다.

- 수습기자 채용 안내 -

- 모집부문: 취재(뉴메트로 공채 6기 수습기자)
- 모집내역: ① 전형방법 ▲1차: 서류전형 ▲2차: 취재 역량평가 ▲3차: 면접(블라인드 방식)
- ② 모집인원: 0명
- ③ 응시자격: 대학 이상 졸업자(2020년 2월 졸업 예정자 응시가능) <공통사항> ① 남성은 병역필 또는 면제자 ②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③ 청년내일채움공제 해당자 우대
- 제출서류
  - ① 지원서 1부(☞ 본지 홈페이지에서 지원서 양식 다운로드)
  - ② 졸업증명서 1통, 석·박사 학위증명서(해당자) 1통
  - ③ 반명함판 사진 2장(지원서와 수험표 부착)
  - ※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②③항의 서류를 면접 시 제출
- 원서접수
  - ① 기간: 2020년 2월 4일(화) ~ 2020년 2월 19일(수)
  - ② 접수방법: e메일 접수 recruit@metroseoul.co.kr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2월 19일 도착분)
  - ③ 접수장소: (03035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하문로 17길18(옥인동) ㈜메트로미디어 4층 경영지원실 앞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월 21일(금) 본지 웹 사이트 공고 및 개별 통보
- 기타 ① 제출된 서류는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② 시험관련 궁금한 사항은 경영지원실로 문의 (전화 02-721-9826)

**metro**

## 청정지역 대구서 ‘코로나’ 환자 31번째… ‘슈퍼전파자’ 우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청정지역’으로 남아 있던 영남권에 확진 환자가 나오면서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18일 대구시와 질병관리본부 등에 따르면 국내 31번째 확진자인 61세 여성(서구 거주)은 지난 17일 오후 3시 30분 발열, 폐렴 증세를 보여 대구 수성구보건소를 찾았다가 대구의료원으로 이송돼 음압병실에 격리됐다. 이 환자는 질병관리본부 최종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 <관련기사 4면> 이 환자는 지난 6일 교통사고를 당한 뒤 이튿날 수성구 범어동 한방병원(새로난)에 입원했다. 입원 전인 지난 6~7일은 동구 소재 직장에 출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9일과 16일에는

남구 교회에서 2시간씩 예배에도 참여했다. 15일에는 지인과 동구에 있는 호텔(퀸벨호텔)에서 점심 식사를 했다.

질병관리본부는 현장 대응팀 12명을 대구에 파견해 대구시 보건당국 등과 협력해 31명 환자의 상세 동선과 접촉자 등을 파악하고 공간 폐쇄, 접촉자 격리 등을 할 계획이다.

31명 환자가 최근 한 달 사이 해외를 방문한 이력이 없고 다른 확진자와 접촉한 이력도 확인되지 않아 보건 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특히 이 환자가 지역 중형 병원, 교회, 호텔 등을 거쳐 가고 대중교통도 이용한 것으로 조사돼 ‘슈퍼전파자’ 우려도 제기된다. /이세경 기자 seilee@

## ‘조현아 연합’ 흔들… 김치훈, 사내이사 후보 ‘사퇴’

“본인 의도와 다르게 진행  
경 영진 지지하는 입장”

‘반 조원태 연합’이 동승한 배가 벌써부터 가라앉을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진칼은 18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KCGI(강성부 펀드), 반도건설 등 ‘3자 연합’이 사내이사 후보로 추천했던 김치훈 전 한국공항 상무가 사퇴의사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한진칼은 김치훈 전 상무가

지난 17일 보낸 서신을 통해 “3자연합이 본인을 사내이사 후보로 내정한 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며 “3자연합이 추천하는 사내이사 후보에서 사퇴하겠다”고 알렸다고 전했다.

특히 그는 “3자연합이 주장하는 주주제안에 동의하지 않으며 본인의 순수한 의도와 너무 다르게 일이 진행되고 있음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KALM AN으로서 한진그룹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오히려 동료 후배들로 구성된 현 경영진을 지지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진그룹 모든 구성원들이 힘을 모아 대화합함으로써 한진그룹이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되도록 힘써주시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입장을 전했다.

앞서 지난 13일 한진그룹 정 상화를 위한 주주연합은 오는 3월 25일께 열릴 예정인 한진칼 주주총회 이전, 주주제안과 함께 사내·사외이사 추천 후보를

공개했다. 사내이사과 사외이사 각 4명, 총 8명으로 김치훈 전 대한항공 상무는 사내이사 중 한 명으로 추천된 바 있다. 그러나 단 4일만에 본인 의사와 다르다며 후보 사퇴 의사를 밝힌 것이다. 이밖에 ▲김신배 전 SK그룹 부회장 ▲배경태 전 삼성전자 중국총괄 부사장 ▲함철호 전 티웨이항공 대표이사(기타비상 무이사 후보) 등이 사내이사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